

이쿠노의 이 저택은 프랑스인 지질학자이자 기사이기도 했던 에밀 테오필 무세(1845-1895년)를 위해 1872년에 지어졌습니다. 프랑스인 건축가 M. J. 레스카스가 설계했으며, 무세가 이쿠노 광산에서 부지휘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그의 아내와 5명의 자녀가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. 무세가 귀국한 후 1888년에 미코바타로 이축되어 광산 사무소로 사용되었습니다. 이듬해 궁내청 소유가 되었으며 천황가의 상징인 국화무늬 기와가 지금도 지붕을 장식하고 있습니다.

1987년 미코바타 선광장 폐쇄 후 2004년 옛 무세 저택 자료관이 되었으며, 예전의 선광장 사진과 광석 및 광물의 샘플, 선광장을 설명하는 모형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 건물은 몇 차례 보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지어진 당시와 거의 같은 상태로 남아있습니다. 당시 그대로의 창문과 덧문은 원래의 외관에 맞도록 도장되었으며 1992년에 효고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.